

아동의 공평성 개념 및 우정 개념의 발달

The Development of Child's Conception of Justice and Friendship

김 미 해*

Kim, Mee Hae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developmental trends and relationships between justice and friendship. Four different interviews were administered individually to fifty 4-to 8-year old children. In the Justice domain, the interviews consisted of open-ended questions devised to investigate the children's understanding of justice and a hypothetical story dilemma based on Damon(1977). In the friendship domain, the interviews consisted of open-ended questions based on Bigelow(1975; 1977) and Damon(1977) and a hypothetical story dilemma based on Selman(1981). The developmental stage of each concept was determined through content analysis of the responses each child. Statistical analysis of obtained data was by percentage and Goodman-Kruskal's γ .

*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conceptions of justice and of friendship developed in an age-related manner during early and middle childhood. While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conceptions of justice and friendship, this result was due to age-relatednes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pport a domain specific approach to social cogni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이해—즉 아동의 사회인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10여년 동안 발달심리학자들은 사회인지를 특별한 종류의 지식으로 보는 접근방법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사회적 지식으로서의 사회인지에 대한 최근 연구의 추세는 인지구조에 대한 영역별 특수한

해석을 지향하고 있는데, 즉 사회적 지식은 비사회적 인지구조와 비교적 독립된 것으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며, 구별된 영역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Turiel, 1983). 따라서 조직화된 사고체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영역을 확인하고, 각각의 발달적 순서를 추적하고, 그러한 것들이 유래하는 개인-환경 상호작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이 분야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Damon(1977)은 아동의 사회적 생활에서 중요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하게 생각되는 4가지 영역의 사회적 개념—권위 (authority), 우정 (friendship), 공정성 (justice), 사회적 규제 (social regulation)—을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사회적 관계에 관한 개념으로서 우정과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공정성 개념은 아동의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요 개념이다. 예로부터 우정은 인간관계 중 가장 공통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우정개념의 발달적 경향이나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들이 소수 이루어지고 있으나(윤진, 1984; 이주옥, 1985; 이선희, 1986), 다른 영역의 개념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공정성은 특수한 도덕개념으로서 개인의 다양한 주장들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관심은 2-3세 정도의 어린 아동의 사회·도덕적 행동에 중심적인 것으로 관찰되어 왔다(Damon, 1975). 그러나 양보와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공정성 개념은 어떠한 양식으로 발달하는지는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작은 지침으로서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정과 공정성 두 개념의 발달적 특징 및 상호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지적 개념으로서 아동의 우정, 공정성 두 개념의 발달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인지적 개념으로서 우정, 공정성 두 개념의 발달간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발달적 관점에서의 사회인지

1950년대 후반기 이후 역할수용과 도덕 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Piaget의 연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역할, 아티주의 죽음과 같은 여러 사회적 영역에 Piaget의 단계 공식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Kohlberg, 1966; Emmerich 등, 1977; Marcus & Overton, 1978; White, Elson & Prawat, 1978).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인지의 발달적 변화에 관한 많은 연구는 Piaget의 초기 연구에 의존하여 전체적인 분석을 적용하거나, 핵심적인 인지 구조가 사회영역의 발달에 필요하지만 충분치는 않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인지 연구에서는 조직화된 사고체계를 형성하는 사회인지적 기능을 다른 기능과 구분하는 이론적, 경험적 기초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영역별 구조 발달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Damon, 1977; 1979; 1981; 1983a; 1983b; Damon & Colby, 1987; Gerson & Damon, 1978; Nucci & Turiel, 1978; Nucci & Nucci, 1982; Selman, 1981; Turiel, 1983). 그리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의 사회적 세계에 대한 지식 연구에 구조 발달적인 접근을 확장시키고자 시도하여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데 이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왔다(예: Much & Schweder, 1978; Nucci & Nucci, 1982; Nucci & Turiel, 1978; Turiel, 1978). 따라서 사회적 지식으로서의 사회인지에 관해 최근 많이 수용되고 있는 발달적 관점은 인지 영역별 구조 발달적 관점으로서, 각 개념 영역들을 분리시켜서 영역내에서의 발달적 변화를 논리-수학적 단계모델 보다는 덜 형식적이고 더 내용이 풍부한 모델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2. 사회적 개념—우정과 공평성

사회인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영역들은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개념들 중 어떤 것에 우위를 둘 수는 없으나 특히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적 관계 개념의 하나인 우정과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공평성 개념을 선택하여, 두 영역간의 관련성 및 독특성을 발달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1) 분배에서의 공평성(Distributive Justice)

사회적 세계는 사람들간 상호작용이나 관계 그리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Turiel(1983)에 의하면 아동이 사회적 세계를 구조화하는 기초는 세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심리적 체계로서 사람에 대한 개념을 말한다. 즉 성격, 자아, 정체감 등에 대한 아동의 개념을 조사한 연구가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둘째는 사회적 조직화의 범주로서, 사람들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관계를 맺는 방법에 관한 개념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사회적 인습, 사회체계, 집단, 사회제도, 권위, 사회역할을 다루는 것 등이다. 세번째 범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행동해야 하는 방법에 관해 규정짓는 도덕적 판단의 범주로서, 공평성에 대한 아동의 개념은 바로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분배에서의 공평성일 것이다. 자원분배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데, Frankena(1963)는 세가지 범주의 분배양식을 제시하였다(Damon, 1977). 첫째는 가치있는 특성에 따른 분배양식(Meritarian)으로서, 어떤 가치있는 특성(예 : 연령, 성, 지능, 좋은 성품, 인종, 미, 근면 등과 같은 것)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몫

의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둘째는 동등성에 따른 분배양식(Equalitarian)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자원을 동등하게 할당받을 권리가 있거나 혹은 적어도 그 자원을 습득할 동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보는 양식이다. 마지막으로 관용에 따른 분배양식(Benevolent)은 어떤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람이나 이전에 박탈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외의 것을 줌으로써 인간들간 동등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물론 이 세가지 기본적인 분배양식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분배 결정에 서로 결합될 수도 있고,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

Damon (1977; 1980; 1983)은 아동과의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의 공평성 개념 수준을 발견하였다. 가장 초보적인 0-A 수준에서 아동은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간 잠재적인 갈등이 있을 경우, 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결과를 보장하는 해결방법을 사용하며, 해결책을 정당화하는 특성은 이기적이고 주관적이다. 0-B 수준에서는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어떤 관찰가능한 특성을 고려하는 초보적인 상호성의 개념이 나타난다. 그다음 1-A 수준에서의 공평성 원칙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나 같은 취급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1-B 수준에서는 행위의 상호성 원리에 기초해 공평성을 판단하는데, 바람직한 특성을 소유했느냐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지만, 상호성의 가치가 일방적이며 추론은 절대적이고 융통성이 없다. 2-A 수준이 되면 여러가지 갈등이 포함된 주장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갈등의 해결이라기 보다는 갈등이 되는 주장간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마지막 수준으로서 2-B 수준에서는 현 상황에서 가장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주장인지 더 고차원적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가장

좋은 주장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제외시켜 나가는 갈등해결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수준들은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연령에 따라 향상하는 발달적 현상을 이루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나(Damon, 1977),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 현상이 지지되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간을 다같이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관계를 상하의 신분 질서로 규정하고 있는(최재석, 1989) 문화권에서도 이 공평성 개념이 비슷한 발달적 현상을 보일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은 흥미 있고도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우정

사회인지의 한 영역으로써 우정관계는 아동기 동안 동료간의 중심적인 사회 관계이다(Berndt, 1981; Damon, 1977).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우정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연령을 명시하는 것은 어려우나, 사회인지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우정 개념의 형성에도 발달과정에 따른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Furman & Bierman, 1984; Hartup, 1989).

Selman(1981)은 이야기 딜레마를 7-12세 아동에게 실시함으로써, 아동기에서의 우정 개념 발달을 5단계로 규정하였다. 첫번째는 일시적인 물리적 놀이(momentary physicalistic playment)의 단계로서 가장 초보적인 사회적 관점수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정은 물리적-지리적 관계, 일시적인 행동, 자기의 바람에 기초하여 주관적인 특성을 보인다. 두번째는 일방적인 도움(one-way assistance)의 단계로서 한쪽편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을 상대편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 공평한 협력(fair-weather cooperation)의 단계에 들어서면 우정은 상호간

협동적이고 공평한 상호성으로 정의하게 된다. 네번째는 친밀하고 상호적으로 공유된 관계(intimate and mutually shared relationships)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 들어서면서 관점 수용에서 제 3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진보가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상호의존적 우정(autonomous interdependent friendship)의 단계에서는 우정이란 서로의 독립성과 의존성의 느낌을 조정하는 능력을 통해 계속 성장할 수도, 변형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연구마다 우정에 대한 언어적인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범주들이 서로 상이하고, 우정개념에서 나타나는 질적인 차이가 발달적 현상인지의 여부에도 일치점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발달적 현상임을 인정하는 연구에서조차 그 변화의 시기 및 구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정개념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사람간의 심리적인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는 우정 개념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우정 개념은 공평성 개념과 연관성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 연관성은 공평성 개념의 0-A와 0-B 수준에서 특히 명백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수준에서 아동들은 공평성을 자신의 욕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를 좋아하는 것이 그들에게 공평하게 되는 충분한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동은 점차 분화될 뿐 아니라, 두 개념간 기능적 구분은 시작부터 존재하며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다른 원리하에 작용하게 된다(Damon, 1977). 따라서 두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분명히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정이 도덕적 교환을 촉진한다는 관점은 다양

한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는데 (예: Newcomb & Brady, 1982; Nelson & Adoud, 1985). Matsumoto 등(1986)은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교환 상황에서 비친구는 친구보다 더 경쟁적으로 행동함을 발견하였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한 Morgan 과 Sawyer (1967)의 연구에서는 서로 친구일 경우에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때 조차 보상의 불평등한 분할에 동의하지만, 서로 싫어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대에 관계없이 동등성을 주장하였다 (Hartup, 1989).

모든 친밀한 관계는 동등성에 기초하고, 이 동등성의 표명은 관계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Hartup, 1989), 우정과 공정성간의 밀접한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둘간의 관계가 어떠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아동을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회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영역별 구조 발달적 관점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살고있는 만 4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으로서 각 연령 집단 별로 남·여 각 5명씩 총 50명이다. 공정성 개념 및 우정개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만 4세에 각 개념이 출현한다고 하였고, 8세까지로 제한한 이유는 우정 개념은 청소년기까지 발달하므로 이 시기까지 포함한다면 공정성 개념은 천정효과 (ceiling effect)를 보일 것이므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 개념이 나타나는 시기까지로 제한하였다.

2. 각 개념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및 우정 개념을 평가하기 위해, 각 개념에 관해 개방식 질문과 가설적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공정성 영역에서의 개방식 질문은 아동이 공정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일정 형식 없이 아동의 자유로운 반응에 초점을 두었다. 아동의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유치원 교사 5명에게 질문을 구하여 아동의 사회적 환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개 상황—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동료 관계—을 제시하여 주고, 각 상황에서 공평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공정성 개념에 대한 개방식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넌 공평이나 불공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공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불공평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

둘째, 만약에 네가 언니(오빠, 형 혹은 동생)랑 싸웠는데 엄마가 언니편(네편)을 들어주면 넌 어떻게 될지?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왜?

셋째, 만약에 유치원에서 게임을 했는데 너희편(상대편)이 반칙을 해서 이겼는데도 선생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거야. 그럴때 넌 어떤 생각이 들겠니?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왜?

넷째,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어떤 친구가 너만 빼놓고 다른 친구들만 태워준다면 넌 어떤 생각이 들겠니?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왜?

가설적 상황에서의 공정성 개념 평가는 Damon (1977)의 연구에 기초해서 각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분배에 관한 이야기 딜레마를 지시한 후 임상적 면접을 실시하였다.

우정 영역에서의 개방식 질문은 Bigelow(1975; 1977), Damon(1977)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선정

하였는데, 이 개방식 질문에서 조사하고자 한 것은 친구란 어떤 존재인지, 우정의 형성 및 그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다. 우정 개념에 관한 개방식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너는 제일 친한 친구가 있니? 왜 그애가 제일 친한 친구니? 어떻게 친구가 되었니? 싫어하는 친구도 있니? 왜 싫어하지?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는 어떻게 다르니?

둘째, 너는○○(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가 다른 애랑 친하게 지내면 어떤 생각이 드니?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

셋째, 너는 친한 친구와 싸운적이 있니? 무엇 때문에 싸웠지? 싸우고 나서 어떻게 했니? 싸우고 나서 다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니?

우정 개념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가설적 이야기 딜레마는 Selman(1981)의 연구를 기초로, 공평성 개념과 유사한 조직화 원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공평성 개념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제시한 후 임상적 면접을 실시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야기 딜레마와 개방식 질문의 타당성 및 소요시간, 아동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당 2명씩 총 10명에게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방식 질문에서의 공평성에 관해서는 아동의 이해 정도가 낮았으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아동이 잘 이해하였다. 이 결과로 공평성에 대한 개방식 질문에 3개 상황을 첨가하였다. 또 개별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 이었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면접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7일간 본 연구자가 단독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아동의 반응은 녹음되어 전사되었다.

4. 자료분석

공평성 및 우정 개념에 관한 아동과의 면담내용을 내용분석하였다. 공평성 영역에서는 Damon(1977)의 분석기준을, 우정 영역에서는 Selman(1981)의 기준을 적용하여 각 개념의 발달단계를 결정하였다. 발달단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아동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공평성 영역에서는 84%, 우정 영역에서는 90%이었다. 각 개념의 발달수준을 서열점수로 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본 자료의 경우에는 중복등위가 많으므로 Goodman-kruskal의 γ (gamma)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공평성 개념의 발달적 경향

공평성 영역에서 “공평이나 불공평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6세 이상의 아동(87%)은 거의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공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거의 모든 아동이 “잘 모르겠다”고 반응을 하였다. 몇 명 예외가 7, 8세에서 나타났는데, 7세 여아는 “선생님이 다른 애만 예뻐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친구랑 놀 때 넘어졌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하였고, 8세 남아는 “공평이란 거짓말을 안하는 것이고, 불공평이라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반응하였다. 이 반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은 공평이나 불공평에 대해 사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표 1〉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공평 여부의 정확한 판단의 빈도

빈도 상황 연령 및 백분율	부 모	교 사	친 구
4 세	0(0)	0(0)	2(20)*
5 세	1(10)	2(20)	8(80)
6 세	5(50)	2(20)	9(90)
7 세	9(90)	8(80)	9(90)
8 세	10(100)	10(100)	10(100)
계	25(50)	22(44)	38(76)

* ()는 백분율

〈표 2〉 연령에 따른 공평성 개념의 수준별 빈도

공평성개념 연령수준	0-A	0-B	1-A	1-B	2-A	2-B	소계
4 세	6(60)	4(40)	0(0)	0(0)	0(0)	0(0)	10(100)*
5 세	1(10)	4(40)	5(50)	0(0)	0(0)	0(0)	10(100)
6 세	0(0)	1(10)	5(50)	2(20)	2(20)	0(0)	10(100)
7 세	0(0)	2(20)	1(10)	2(20)	3(30)	2(20)	10(100)
8 세	0(0)	1(10)	1(10)	2(30)	2(20)	3(30)	10(100)
계	7(14)	12(24)	12(24)	7(14)	7(14)	5(10)	50(100)

$\gamma = .76(p < .001)$

* ()는 소계에 대한 백분율

세가지 상황-형제간 싸움이 있을 경우 부모의 벌칙 행위, 게임상황에서 반칙에 대한 교사의 판단, 친구와 교대로 자전거를 탈 때 친구의 행위-에서 공평 여부에 대한 아동의 판단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세 이전에는 부모나 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평 여부에 대해 그릇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5세 아동도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가설적 이야기 딜레마에서 나타난 아동의 공평성 개념의 발달 경향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연령과 공평성 개념 수준간에는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mma = .76, p < .0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0-A 수준은 4세에서 현저하고, 0-B 수준은 4-5세에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1-A 수준은 5-6세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비해, 1-B 수준과 2-A 수준은 6세부터 8세까지의 아동에게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2-B 수준은 7세와 8세에서만 나타났다. 이 결과로 아동의 공평성 개념은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 우정 개념의 발달적 경향

우정 영역에서는 가설적 이야기 딜레마에서 보다 개방식 질문에서 아동이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우정 개념의 발달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방식 질문에 대한 반응과 가설적 이야기에서의 반응을 종합하여 Selman(1981)의 기준에 따라 발달 수준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Selman(1981)의 수준은 5수준인데 비해 본 연구의 피험자 반응은 3수준만 나타났으므로 3수준만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연령과 우정 개념 수준간에도 강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gamma = .80, p < .001$). 〈표 3〉을 살펴보자면 4,5세에는 물리적인 놀이의 수준이 지배적이고, 6세가 되면 물리적인 놀이 수준과 일방적인 도움의 수준이 각 반반씩 나타나게 된다. 7세에서는 일방적인 도움의 수준이 조금 더 많기는 하나, 3수준이 모두 고르게 나타나게 되고, 8세에 이르게 되면 일시적인 놀이 수준은 현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공평한 협력의 수준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아동의 우정 개념은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 연령에 따른 우정 개념 수준별 아동 반응의 빈도

우정개념 연령수준	일시적인 물리 적 놀이수준	일방적인 도움수준	공평한 협 력의수준	소 계
4 세	10(100)	0(0)	0(0)	10(100)*
5 세	7(70)	3(30)	0(0)	10(100)
6 세	5(50)	5(50)	0(0)	10(100)
7 세	3(30)	4(40)	3(30)	10(100)
8 세	1(10)	4(40)	5(50)	10(100)
계	26(52)	16(32)	8(16)	50(100)

$\gamma = .80(p < .001)$

* ()는 소계에 대한 백분율

3. 공평성 개념과 우정개념의 관련성

공평성 개념과 우정 개념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개념별 아동반응의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두 개념간 관련 정도는 γ 계수 .65($p < .001$)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평성 개념에서 낮은 수준에 있는 아동은 우정 개념에서도 낮은 수준에 있으며, 공평성 개념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아동은 우정 개념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공평성 개념 및 우정 개념은 둘다 연령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두 개념간의 관련 정도가 연령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5연령수준 각각에서 공평성 개념과 우정 개념간의 관련도를 계산함으로써 연령 요인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 4세에서는 γ 계수가 계산될 수 없었고, 5세에서는 .50으로 유의있는 관계가 없었으나, 6세에서는 .78($p < .05$)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7세와 8세에서는 역시 유의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각 $\gamma = -.50, \gamma = .42$). 따라서 이 결과에 의하면 연령을 통제했을 때 6세에서만 높은 관련도가 나타났으므로 연령이 두 개념간의 관련도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공평성 개념 수준과 우정 개념 수준에 대한 아동 반응의 빈도

우정개념 연령수준	일시적인 물리 적 놀이수준	일방적인 도움수준	공평한 협 력의수준
0-A	7(14)	0(0)	0(0)
0-B	9(18)	2(4)	1(2)
1-A	6(12)	5(10)	1(2)
1-B	1(2)	4(8)	2(4)
2-A	2(4)	3(6)	2(4)
2-B	1(2)	2(4)	2(4)

$\gamma = .65(p < .001)$

* ()는 백분율

V. 논의 및 결론

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공평성 및 우정 개념의 발달적 경향을 알아보고, 아울러 두 개념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공평성 개념에 대한 개방식 질문에서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에 대해서 보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공평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공평한 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동료관계는 동등한 인간관계로 인식하나, 부모나 교사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는 4-7세 아동은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를 존경함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합법화하고 그에 복종한다는 Damon(1977)의 연구결과와 부합된다. 아동의 반응을 예로 들자면, 부모가 형제간의 싸움을 중재할때 어느 한 쪽만 편드는 것을 공평하다고 판단한 한 5세 아동은 그 이유를 "엄마는 다리가 아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였고, 또 한 아동은 "동생은 어리니까 엄마가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하였다.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생각을 잘 하니까 옳다", "무조건 옳다"라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에 대해서는 이해와 사랑의 이유가 많은 반면, 교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어린 아동에게서는 교사의 권위가 더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가설적 이야기 딜레마에서 아동의 공평성 개념은 Damon(197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향상하는 발달적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Damon(1977)연구에서는 8세 아동은 거의 2-A와 2-B의 공평성 개념 수준을 보인데 비해, 우리나라 7, 8세 아동의 반응은 0-B에서 2-B까지 흩어져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한가지 가능성은 공평성에 대한 강조의 정도가 다른 문화권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높은 수준의 공평성 개념은 외국 아동에 비해 비교적 늦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우리나라 6세 아동은 2-A 수준의 반응을 꽤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 자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2-A 수준의 반응을 보인 아동은 자신의 결정을 '어리니까 양보해야 한다'로 정당화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아 '양보'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규준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우정 영역에서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가설적 이야기에서 보다 개방식 질문에 대해서 보다 자신의 생각을 활발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두 종류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설정한 발달수준은 공평성 개념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발달적 경향을 보였다. 4세에서는 모든 아동이 일시적인 놀이 수준의 반응을 보였고, 5, 6세가 되면서 일방적인 도움 수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평한 협력의 수준은 7·8세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하여, 8세에서는 거의 절반의 아동이 이 수준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발달 경향은 Selman(1981)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우정 개념에 대한 이야기 딜레마에서 새로운 친구와 오래된 친구간 갈등 발생시 아동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56%가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선택하였다. 이는 6세 이후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아동들은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새친구를 사귀는 것을 선택한 26%의 아동도 대다수가 '아마 오랜 친구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것이다'라고 반응을 함으로써, 새친구와 놀고 싶은 마음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외국의 자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와같은 현상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의 하나인 '의리의 관념'(최재석, 1989)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공평성 개념과 우정 개념은 상당히 높은 관련성을 보이나 이는 두개념의 연령 관련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공평성 개념 수준에서는 두 개념간 관련도가 점차 기능적으로 분리될 것이라는 Damon(1977)의 예상은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직접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이전 연구에 비추어 보면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Selman, 1981)이나 논리적 추론 능력(Damon, 1975; 1977)등 여러 가지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이러한 발달이 사회인지적 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두 개념간의 높은 관련성을 가져 왔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평성 및 우정 개념간의 관계가 연령 요인 때문임을 밝힘으로써, 사회인지의 제반 영역은 전체적인 발달적 모델로 연구되어서는 안된다는 영역별 구조 발달적인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집 수가 작고, 아동의 언어적인 반응에만 초점을 둬므로써, 언어능력의 제한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에서는 사회적 사고로서의 사회인지에 관한 발달적 모델을 임상적 상황에 적용한 연구(Selman & Domorest, 1984; Selman 등, 1986; Selman & Schultz, 1989) 및 교육적 상황에 적용한 연구(Damon & Phelps, 1989)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아동 연구 분야에서는 사회 인지에 대한 관심이 그리 오래 되지 못하였다. (예: 김경희, 1987; 1990; 김은희, 1990; 박찬옥, 1986; 이수원, 신현숙, 1986; 이수원, 박영석, 1988).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사고로서의 사회인지 연구에서 각 영역들을 분리시켜 연구하여야 한다는 영역별 구조 발달적인 접근을 지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보다 나은 추후 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개념의 발달적 변화를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종단적인 연구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개념의 발달적 변화를 야기하는 기제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제 능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설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언어적

인 반응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생활에서 표현되는 아동의 개념 수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결 론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와 얻어진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공평성 개념은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아동의 우정 개념 역시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아동의 공평성 개념과 우정 개념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나, 연령 요인이 두 개념간의 관련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1986).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개념. 숙명 여자 대학교 아동 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1987).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8(2), 45-60.
- 김경희(1990). 아동의 부모 권위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Damon의 권위 개념 단계에 따른 분석. 아동학회지, 11(1), 15-28.
- 김은희(1990).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찬옥(1986).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사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1984). 우정 관계의 본질과 발달 관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2(1), 94-113.

- 이선희(1986). 집단내에서 인기도와 친구관계 개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이수원, 신현숙(1986). 태도의 차원 구조: 발달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5(3), 181-192.
- 이수원, 박영석(1988). 평가 차원에서 기술 차원으로: 태도의 변형 생성 과정. 사회심리학 연구, 4(1), 155-182.
- 이주옥(1985). 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최재석(198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Berndt, T. J. (1981). Relations between social cognition, nonsocial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The case of friendship. In J. H. Flavell & L. D. Ross (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Frontiers and possible fut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gelow, B. J. (1977). Children's friendship expectations: A cognitive 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igelow, B. J. & LaGaipa, J. J. (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857-858.
- Damon, W. (1975). Early conceptions of positive justice a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logical operations. Child Development, 46, 301-312.
-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 Damon, W. (1979). Why study social-cognitiv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22, 206-211.
- Damon, W. (1980).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social reasoning: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51, 1010-1017.
- Damon, W. (1981). Exploring children's social cognition on two fronts. In J. H. Flavell & L. Ross (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mon, W. (1983a). The nature of social-cognitive change in the developing child. In W. F. Overton (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Damon, W. (1983b). Five questions for research in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 E. T. Higgins, D. N. Ruble & W. W. Hartup (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mon, W. & Killen, M. (1982). Peer interaction and process of change in children's moral reas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28(3), 347-367.
- Damon, W. & Colby, A. (1987). Social influence and moral development.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Mor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Damon, W. & Phelps, E. (1989). Strategic use of peer learning in children's education.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Emmerich, W., Goldman, K., Kirsch, B. & Sharabany, R. (1977). Evidence for a transitional phase in the development of gender constancy. Child development, 48, 930-936.
- Furman, W. & Bierman, K. L.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A multimethod study of developmental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925-931.
- Gerson, R. R. & Damon, W. (1978). Moral understanding and children's conduct In W. Damon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Moral development, no. 2 San Francisco: Jossey-Bass.
- Hartup, W. W. (1989). Behavioral manifestations of children's friendships. In T. J. Berndt & G. W. Lass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46-70). New York: Wiley.
- Kohlberg, L. (1966).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 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 Maccoby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cus, D. & Overton, W. (1978).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gender constancy and sex-role preferences. Child Development, 49, 434-444.
- Matsumoto, D. & Haan, N., theodorou, P. & Carney, C. C. (1986). Preschooler's moral actions and emotions in the prisoner's dilemma.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663-670.
- Much, N. & Schweder, R. A. (1978). Speaking of rules: The analysis of culture in breach. In W. Damon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Moral development, no. 2, San Francisco: Jossey-Bass.
- Nelson, J. & Aboud, F. E. (1985). The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 between friends. Child Development, 56, 1009-1017.
- Newomb, A. F. & Brady, J. E. (1982). Mutuality in boy's friendship relations. Child Development, 53, 392-395.
- Nucci, L. & Nucci, M. S. (1982).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in context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 Child Development, 53, 403-412.
- Mucci, L. & Turiel, E. (1978).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00-407.
- Selman, R. L. (1981). The child as a friendship philosopher. In S. R. Asher & J. M. Gottman (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man, R. L. & Domorest, A. P. (1984). Observing troubled children's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Implications of and for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55, 288-304.
- Selman, R. L. & Schultz, L. H. (1989). Children's strategies for interpersonal negotiation with peers.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Selman, R. L., Beardslee, W. Schultz, L. H., Kru-

- pa, M. & Podorefsky, D. (1986). Assessing adolescent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Toward the integration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50-459.
- Turiel, E. (1978). The development of concepts of social structure: Social convention. In J. Glick & A. Clark-Stewart (Eds.),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New York: Gardner Press.
- _____ (1983). Domains and categories in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 W. F. Overton (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New Jersey: Erlbaum.
- White, E., Elson, B. & Prawat, R. (1978). Children's concepts of death. Child Development, 49, 307-310.